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11강, 죄 많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칼,

에스겔 20:45-23:49

© 2024 Leslie Allen 및 Ted Hildebrandt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죄많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칼 11부입니다. 에스겔 20:45-23:49.

지난번에는 에스겔서 20장부터 44절까지 보다가 멈췄습니다. 45절에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영어 성경의 장 구분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역본의 현재 1절에서 21절을 시작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전체가 21장 전체에 걸쳐 칼, 칼, 검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메시지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 성경 전통에서 우리가 장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른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45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1절이고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어 본문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나는 거기에 칼이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매우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새로운 주제가 새로운 키워드와 정반대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20-45에서 새로운 테마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 우리는 21:1로 시작하는 메시지 모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검 반복을 키워드로 끝까지 얻습니다. 예, 해당 키워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자세히 살펴보면 21장 1-7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이 20-45-49절에서 시작되는 메시지에 밀접하게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로 45장에서 말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고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9.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45-49와 21-1-7의 메시지 쌍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20-45에서 23-49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 장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칼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의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칼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2장에서 우리는 이 형벌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22장에서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예루살렘의 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시 23장에 이르면 백성의 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형벌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은 유다의 죄악이며,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고, 유다와 유다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 순서를 갖춘 좋은 컬렉션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인 45-49절은 산불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러한 비유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화범은 누구인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른 걸까요?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캠핑을 하고 나서 불을 끄지 않았나요? 방화범은 누구인가? 자, 여기서 방화범은 바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산불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화재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글썄, 그것은 당신이 읽는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New RSV의 46절에는 네게브, 즉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 네게브에 있는 숲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7절에는 네게브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NIV를 보면 매우 유효한 다른 번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랜드(Southland), 덜 구체적인 단어, 좀 더 일반적인 단어, 사우스랜드의 숲, 사우스랜드의 숲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유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해석에 이르면 예루살렘과 성소와 이스라엘 땅이 언급될 것이며 이 경우 이스라엘 땅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46절에서 남쪽을 향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 할 때 그가

수신인 또는 수신자들의 방향을 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수사적입니다. 수신자 유다, 그러나 그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방향에 대해 확고히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산불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이 그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 불의 열기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모든 나무를 태워버리고 심지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태울 정도입니다. 글썄요, 그것이 그가 전하라고 들은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너무 은유적이고 너무 우화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겔아, 좀 더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올려도 될까요? 이것이 49절의 의미입니다. 아, 주 하나님! 그게 그의 향의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방해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그는 방해합니다. 그는 끼어들었고, 그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내용이 내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 주 하느님, 그들은 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이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은유가 이해되거나, 좋아하거나, 평가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어줄 메시지를 간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수정하고 산불 대신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칼은 분명히 군사적 공격을 의미할 것이며, 우리는 실제로 군사적 공격의 현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버전입니다.

우리는 20년의 끝 부분인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고, 21년의 첫 번째 메시지인 새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2044년 이후에 중단점을 두고 새로운 장을 시작한 좋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장 구분에도 논리가 있지만 히브리어 장 구분이 더 나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의 다음 메시지는 다시 통과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1의 메시지를 통해 쪽 키워드가 될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군사언어를 이전에 사용했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땅은 아마도 유다를 의미하며 21장 2절에서는 수도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모든 곳에서 칼을 휘둘러 모든 나무를 불에 태운 것처럼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육에는 전체가 있는데, 그것은 3절 끝부분에서 매우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치러 가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모두 네게서 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총체적이어서 나쁜 놈들뿐만 아니라 좋은 놈들도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귀를 쫓긋 세우며 말합니다. 아, 우리는 에스겔서의 이전 장들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9장과 14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모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메시지들은 일부의 생존을 언급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체가 고국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압도적인 성격을 실제로 염두에 두는 수사적 향상이나 장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입이 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597년에 침공했지만 이것은 597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수사학적 요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의도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 6절과 7절에서 에스겔은 일종의 상징적 행동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애도하며 큰 소리로 애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실 당시 환자로 병원에 있었는데 복도 건너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딸이 보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가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고 그녀는 통곡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지만 한밤중에 병동에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도 전통은 매우 목소리가 컸으며, 바로 이 목소리의 측면이 여기서 지적됩니다: 6절: 신음 소리가 그들의 눈앞에서 상한 마음과 쓰라린 슬픔으로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왜 신음합니까? 당신은 온 소식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다. 모든 영이 피곤하고 모든 무릎이 물로 변할 것입니다.

보라 그것이 오고 이루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도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이것이 메시지의 나쁜 소식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점은, 그 뉴스가 실제로 현실이 되면 모든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불에 그을리리라는 이전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587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소식에 대한 597의 유배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불 메시지를 개편한 첫 번째 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장부터 17장까지의 칼의 메시지이기도 한 두 번째 메시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에는 이러한 핵심 단어의 관점에서 함께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날카롭게 연마되고 연마되었습니다. 9절, 칼이여, 칼이 날카로워지느니라. 광택도 나네요.

그것은 학살을 위해 날카롭게 되었고, 번개처럼 번쩍이도록 연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랍고 매우 효율적인 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상대로 사용될 것인가? 누가 칼의 적이 될 것인가? 그리고 12절의 이 부분에서 오 필멸자여, 울부짖고 통곡하십시오.

그는 애도의 상징적인 행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백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과 함께 칼날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들은 적이 될 것입니다. 유다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끝에서 그는 허벅지를 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표현은 그의 슬픔을 육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허벅지를 때리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문화적 몸짓입니다.

그리고 왜? 칼의 대적은 다름 아닌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신들과 백성들과 그 관리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손을 맞대고 치십시오.

이렇게 손뺑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맥락에 따른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 슬픔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손뺑을 치고 나서 검을 두 번, 세 번 떨어뜨리세요.

그것은 죽이는 칼이요, 큰 살육을 위한 칼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도 손을 맞잡고 칠 것입니다. 나는 내 분노를 만족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스겔이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글썬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588년에 시작되어 587년에 비극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6년에 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격하세요. 왼쪽으로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가장자리가 어디로 향하든 이것은 검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름끼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의 레이아웃에서 알 수 있듯이 8부터 17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대개 산문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8에서 27까지 다시 산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 25에서 27까지는 다시 한 번 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 메시지는 18~27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 행위에 대한 설명은 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쪽을 만드는 그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내려야 할 군사적 결정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 느부갓네살이 암몬과 유다 어느 쪽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이 상징적 행동에 대해, 필멸의 여러분, 바벨론 왕의 칼을 위해 두 길을 표시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역사적 용어로 처음으로 해석.

바벨론 왕의 칼이 임하리라.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길이 하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와 아시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이 갈라집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군사 본부를 만든 것 같지만 남쪽에서 공격을 받을 여러 나라에 군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의 제국적 권위에 반항한 국가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는 곧장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내려가면 트랜스요르단을 거쳐 암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만의 수도인 랍바에 공격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그는 해안도로를 따라 갈 수도 있었다.

다메섹에서는 해안으로 넘어가서 바닷길을 따라 해안선을 따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해안 도로의 바닥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다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입니다.

그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전혀 모릅니다. 몰라. 그리고 분명히 그의 군 장교들은 어느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국 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신들에게 문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징조를 찾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군 참모부 중에는 이 징조를 수행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비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을 건너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표지판을 만드세요. 도시로 이어지는 길의 갈림길로 만드세요.

20절. 칼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유다와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를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두 갈림길의 갈라진 곳에서 있기 때문이다.

점술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살통에서 화살을 흔들어 화살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이교도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테라핌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방법이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동물을 잘라서 간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간을 검사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간을 잘라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전조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두 개의 제비와 돌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문을 위한 것입니다. 흔들어서 어느 것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그곳은 확실히 예루살렘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신들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갈 길이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교도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의 영웅들, 유대 전쟁 포로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이상해요.

그는 무엇을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러나 22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의 제비를 뽑으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미래, 그의 군대의 군사적 미래에 공성퇴를 세우고, 살육을 외치고, 전투의 함성을 지르고, 공성퇴를 성문에 두는 포위 공격이 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숫양을 쌓고 공성탑을 쌓으라. 예루살렘은 요새화된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 곳에는 이렇게 멋진 벽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튼튼한 벽이었죠.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위 공격을 통해 결국 이러한 경사로와 공성 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이교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구하는 것, 전쟁 포로들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면 코를 치켜 뜨고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짓 점술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될 전쟁 포로들에 관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 강연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엄숙히 맹세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최고이시며,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를 통해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다가오는 예루살렘 포위 공격의 대리인이며, 예루살렘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의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결정되었고 에스겔을 통해 미리 밝혀진 그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남서쪽 도로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러나 이어서 25장에서 2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정부의 수장인 시드기야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뿔혔고 그는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왕좌를 잃을 것이며 이는 그의 통치가 끝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멀리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 유다의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일의 일환으로 시드기야의 왕권을 박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악하고 악한 이스라엘 왕이여, 너에게는 마지막 형벌의 날이 이르렀느니라.

트루먼 대통령이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부 결정과 토지 관리 방식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시드기야에게 멈췄습니다.

따라서 터번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으십시오.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멸, 파멸, 절대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이자 마지막 칼 메시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며 실제로는 이전 메시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약같네요. 크게 요약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전 메시지의 절정을 제시합니다. 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국 암몬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다음에는 암몬 족속을 위하여 랍바로 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칼은 살육을 위해 끌려가고, 소비되도록 연마되고, 번개처럼 번쩍이는 언어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날이 다가온 자들에게 최후의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25장에서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 언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개가 있습니다. 검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놀라운 전개입니다. 칼집에 다시 넣으십시오.

귀하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가 창조된 곳, 네가 태어난 땅의 그 칼집에 다시 넣어라.

집으로 돌아가라, 검.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칼은 바벨론과 같느니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리라.

내가 너를 멸하기에 능숙한 잔인한 손에 넘겨 주리라. 당신은 불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어머.

화재에 관한 전체 섹션에 대한 초기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불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가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의 최후 운명을 알려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다의 고난과 그 후 유다가 본토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최종 운명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선지자들의 주제이며 이사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위한 이중 계획을 제시하는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서 5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앗수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앗수르야 내 진노의 막대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앗수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이 없는 나라에게 내가 그를 보낸다. 내 분노의 백성에 대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문맥상 이것은 다름 아닌 유다입니다.

약탈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아시리아는 신의 명령을 넘어서 파괴, 사람과 장소의 완전한 파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들이 그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에는 아시리아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0장 12절에 전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앗수르 왕의 교만한 교만과 그의 교만을 벌하실 것입니다. 도끼는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스스로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은 나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 뜻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 이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할 외국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주의를 돌리시고 그 원수는 차례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다에게는 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0장 5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재방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부갓네살이고, 이제는 이 이중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앗수르의 계승자인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이고 신비한 용어로 담겨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에 대한 이 모호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워드를 다시 사용하십시오: 검. 그러나 나는 귀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바벨론의 강대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대적의 궁극적인 몰락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희망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이러한 검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에 말했듯이 21장의 형벌에 대한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형벌을 받은 후에는 고발을 받는데 이는 심판의 신탁에서 정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21에서 2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눈에 띄게 생생하게 제시되는 순서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왜 이런 형벌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초점은 이전 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입문식 후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2장부터 16장까지, 18장부터 22장까지, 24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 권위의 공식은 각 경우의 서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라는 단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절에서 예루살렘을 피의 도시로 처음 묘사한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NIV의 표현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혈의 도시. 유혈사태의 도시. 그리고 이 메시지는 내내 피라는 단어를 집어낼 것입니다.

그 회피는 예루살렘에서 범해진 여러 가지 죄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번 유혈 사태와 억울한 인명 피해로 자꾸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부각되는 또 다른 요인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 중에 피를 흘리는 성읍이 이르렀으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두 개의 항목이 거기에 놓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값싸게 여기고 형상과 관련된 숭배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하느님의 시계는 결산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습니다. 3절. 4절. 당신은 당신의 날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너희의 정해진 때가 이르렀느니라.

따라서 결국에는 앞으로 제기될 이러한 비난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 초기 시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끔찍한 보복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사실 4절에 보면, 수사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로 예루살렘과 말하여 너를 욕되게 하였으며 597년을 되돌아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인 앞에서 욕을 끼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니 그 뜻은 우리가 훨씬 더 나빠질 587로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범죄에 대한 점호입니다. 왕가는 대대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나쁜 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각기 자기의 권세에 따라 피를 흘리는 일에 열심이요, 그 행위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받아들여졌느니라.

정부는 정치권력을 남용했고, 서민들 역시 동료 시민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서둘러 드러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멸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이 착취를 당하고 고아와 과부가 너희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여러 면에서 이런 악행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피를 흘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18장에서 보았던 제사장 명단과 매우 유사한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장에서 언급한 산과 높은 곳에서 먹는 이교 잔치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매주 안식일과 7년마다 안식일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토라에 명시된 두 가지 요구 사항 모두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대인관계 범죄에 대해 손뼉을 치신다고 응답하시며, 지금 여기서는 문맥상 항의의 몸짓입니다. 그리고 597년 엘리트 추방 이후 예루살렘 시민들이 겪게 될 587년 공동체의 해체를 앞두고 있다. 비록 극단적이기는 했지만 명성의 상실을 의미하더라도 해를 끼칠 것이다.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열방의 목전에서 더럽히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 나의 강력한 이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야훼가 얼마나 약해서 바벨론의 신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야 할 유일한 길,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여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18~22장은 은세공인의 작업에서 끌어낸 은유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사실 이사야서와 1장에서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도다” 라는 이전 선지자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너희 은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이제 에스겔은 은유의 대가이자 은유를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을 얻으려는 노력과 은세공인의 일에 대해 이 언급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세공인의 원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납광석, 납과 은을 포함한 다른 금속의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은메달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날, 우리가 587년으로 알고 있는, 변질된 유다의 납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련은 예루살렘이 겪게 될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납 광석에 은을 녹일 만큼 충분한 열을 가하여 광석을 녹이고 남겨두고, 은을 얻고 찌꺼기 나 다른 금속 요소를 남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련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 단계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자체로 끝으로 떠오르는 것은 용광로의 불입니다. 그 다음 24장에서 31장에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다양한 지도자 그룹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 특별한 메시지가 587번을 되돌아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을 멸하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갚았느니라 머리. 그래서 이것은 사건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요약이었고 다른 메시지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함으로써 확보되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23장은 역사 수업이며 유다의 죄성과 587년에 다가올 형벌에 대한 유다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 전체에 걸쳐 잘못된 성욕을 비유로 사용하고 최초의 영웅인 597명의 포로들이 했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필요하게 거칠고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16장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더러운 말, 이런 불쾌한 말,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말을 사용하여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전쟁 포로들이 충격을 받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과장해야 합니다.

귀를 막으려는 집단에게 소리를 지르며 듣게 하려는 방식이다. 충격을 주어 듣게 해줄 테니, 거기까지.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23장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불충실한 아내로 묘사된 16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16장에서는 그 불충실함이 주로 종교적이었습니다.

16장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며 그들의 불신앙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23장에서는 그 반대의 제시로 다른 나라와 동맹과 조약을 맺은 다음 종교인들과의 동맹과 조약을 맺는 정치적 불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성실함은 부수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일부 예언서는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얽힘을 일종의 대안 신앙으로 간주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등을 돌리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보호에 피신하고 이집트의 그늘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동맹을 맺기 위해 파견된 사절들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는다는 문구는 구약의 신앙 어휘의 일부이지만 이제는 대안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보호가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 아래서 너희의 굴욕이 되리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고전 선지자들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왕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 8장 9절. 그들은 앗수르로 올라갔습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을 위해 흥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호세아에게서는 성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애인도 있습니다.

앗시리아인들은 야훼 자신 대신에 북왕국을 사랑하는 새로운 북왕국의 연인들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과 동맹이 불충실하다고 반대하는 장광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앗시리아는 새로운 연인을 찾는 불성실함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성적 은유가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23장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능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동맹에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치하에서는 포위 공격 이전과 도중에 이집트에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왔고, 이집트 군대가 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대로 바빌로니아 군대는 포위 공격을 중단하고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남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강제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불신실함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문학적 단위이다. 2~27, 28~35, 36~49의 세 가지 작은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고대 역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정치적 불성실에 대한 전체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강력한 국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운명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들과 동맹을 맺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세기 동안 초기 단계에 두 개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두 아내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두 아내를 두셨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서 6장부터 13장까지의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은 하나님의 두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오헬라 와 오홀리바입니다. 그리고 오헬라는 그녀의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내 천막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맥락에서 그것은 아마도 결혼이 완성되는 결혼 천막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 부부가 결혼 천막의 유물인 천개 아래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것이 되어 아들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받습니다. 오헬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글썄, 실제로 이 해석은 이것이 해당되는 장의 끝 부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열국이 보이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것인데도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앓수르와 관련된 것은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앓수르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군복을 입은 그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은 모두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오홀리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는 계속된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정치적 불충실함을 표현하는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은 기원전 8세기 앓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북왕국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호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앓시리아인들을 북왕국의 연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선택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에스겔서는 유다의 이어지는 역사를 다룬다. 처음에는 아시리아와 정치적으로 관련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과도 관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역사를 재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충실함을 크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1절은 유다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2절에 비난과 형벌 사이를 연결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대적하여 격노하리라.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관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사람들을 자신의 형벌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작은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나는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너희를 재판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규례보다 훨씬 더 잔인 할 것이니라. 그런 다음 28~35는 이러한 다가오는 경험을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훑어보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32~34에 작은 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에서 31까지의 산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32에서 34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약간의 산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문과 시의 차이점이 있는 일종의 문학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로 다가가면 새로운 은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의 잔이다. 심판의 잔.

그리고 32, 누나의 잔을 마셔야 한다. 북왕국이 앗수르에게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기꺼이 조약을 맺었던 옛 애인들인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잔을 마셔야 해요. 멸시받고 조롱받아야 합니다. 깊고 넓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술취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공포와 황폐의 잔은 네 자매 사마리아의 잔이다. 그리고 이때 그 자매는 사마리아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 끝에 다시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취하게 하는 잔, 이 독한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고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운명적인 새로운 은유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말을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심판의 잔은 신약성서에도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언급하시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36~49절의 마지막 메시지가 두 자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36~45년에는 새로운 비난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불성실, 특히 36~39년에는 어린이 희생에 대한 비난이 있고, 40~44년에는 정치적 불성실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46~49년에 형벌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매들은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집도 파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실제성과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49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야훼의 신실한 추종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죄많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칼 11부입니다. 에스겔 20:45-23:49.